

#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및 재무관리행동,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인과분석

## A Path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Credit Cards,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and Sound Credit Card Use among College Students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김영신\*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Young-See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credit card attitudes,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and sound credit card use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conceptualize a theoretical model. Earlier studies identified a number of antecedent variables (such as gender, year in college, job experience, amount of allowance, family income, living with parents, having taken a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course) and intervening variables (such as attitudes towards credit cards and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as useful predictors of sound credit card practices. Four hundred and thirty four undergraduate students in Daejeon participated in this stud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Students' attitudes towards credit cards were affected by their year in college, whether they were living with their parents, and the amount of their allowance. Similarly, students'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were affected by their year in college, whether they were living with their parents, the amount of their allowance, and whether and not they had taken a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course.
2. Sound credit card practices were influenced by students' gender, their year in college, the amount of their allowance, attitudes towards credit cards, and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3. The path-analysis model demonstrate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antecedent variables, intervening variables (credit card attitude,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and sound credit card use.

▲주요어(Key Words) :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s credit cards), 재무관리행동(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sound credit card use)

### 1. 문제의 제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다. 신용카드의 발급매수도 2003년 6월말 현재 11,410만 매로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 4.9

매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 사용액도 2004년 1/4분기를 기준으로 4,800조 억 원을 넘고 있다(한국은행, 2004). 대학생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약 33%가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보유개수는 1.7매로 나타나고 있다(서인주, 2004).

일반가계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신용카드사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대학생의 경우 월 평균 신용카드사용액은 23만 7천원이고, 하루사용금액이 월소득을 초과한 경우도 20%로 높게

\* 주 저 자 : 김영신 (E-mail : ys\_kim@cnu.ac.kr)

나타나고 있다(김종인 등, 2002).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소비욕구에 비해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하나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크고, 라이프스타일이나 가치관이 소비지향적이며 소비활동이 왕성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신용카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신용, 부채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인데,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신용카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서경의, 1997; Chien & De vaney, 2001),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사용할 것인가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Kaynak et al., 1986).

신용카드의 확대와 더불어 무분별한 카드사용으로 연체 및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2004년 4월말 현재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260만 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20대는 19.7%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은행, 2004). 또한 우리나라 20대 중 약 31.6%가 카드론 등의 신용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8.7%는 카드론 등의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다중채무자이다(김정인 등, 2002).

한편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김경자, 2003; Baek, 2001; Doss et al., 1995) 대학생들의 소비자복지 향상 및 소비자교육을 위해서는 재무관리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다.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인구통계적 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를 변수로 사용한 것은 외국의 연구 2편(Hayhoe et al., 2000; Walker, 1996)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부와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Walker(1996)의 재무관리행동 수준 척도는 기존의 척도와 다르다. 또한 신용카드사용 역사가 짧고, 화폐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며, 대학생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나라 대학생으로까지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재무관리행동이 자신의 재무상태 평가, 구체적인 재무목표 설정, 재무행동계획 수립, 재무계획 실행, 수행 후 평가라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때 이의 실행 수준은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관계는 실증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의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신용카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카드사용에 관한 포괄적 행동이나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 태도, 관리행동을 다루고 있으며, 신용카드 태도가 신용카드사용에 미치는 영향도 사용빈도, 사용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신용카드 사용행동(서경의, 1997), 신용카드사용에 관한 소비자교육프로그램 개발(서인주, 2002), 여대생과 주부

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김정훈, 2002), 부채에 대한 태도와 현금서비스 이용행동(김영선, 2004) 등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문제(신용불량, 충동구매, 다중채무, 이로 인한 재정적 압박감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행동 뿐 아니라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은 소비에 관한 영역에서 거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그 지출액도 비교적 크고 신용카드보유율도 높아 소비와 관련된 자발적인 경험을 하는 시기이다. 특히 대학생 소비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취업을 함으로써 경제적 독립단위로 활동할 것이므로 대학생 시기는 재무관리행동 수준, 신용사용행동에 대한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및 사용행동, 재무관리행동 수준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및 사용행동의 합리성, 재무관리행동 수준과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미래의 소비 주역이 되는 대학생소비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고, 신용카드가 대중화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과소비, 충동구매 문제 뿐 아니라 신용불량, 다중채무, 연체, 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비행행동의 발생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신용카드사용과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소비자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재정적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줄일 수 있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와 신용카드 사용행동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은 주로 신용카드 소유, 소유한 신용카드의 형태, 신용카드의 사용행동(구매품목 등)에 관한 것이다. Xiao 등(1995)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를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등 3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정서적 태도는 신용카드에 대한 느낌이며, 인지적 태도는 지식과 관련된 것, 행동적 태도는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연구 결과 대학생은 신용카드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82%가 정서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67%는 인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 즉,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으나, 지역, 예를 들면 미국 對 캐나다, 도시 對 농촌에서는 차이가 있다(Kaynak et al., 1986). 또한 신

용카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는 연령이 적을수록, 대학교육을 받은 경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Bloom & Steen, 198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신용카드에 대한 정서적 태도는 주거지, 신용카드의 소유여부 및 소유 갯수, 신용카드 사용빈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성별, 아르바이트 시간(주당 20시간을 기준), 전공 등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Xiao et al., 1995). Warwick 등(2000)의 연구에서도 신용카드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태도가 연령, 성별과 관련이 없었다. Joo 등(2003)도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인종, 어렸을 때의 부모들의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 소유, 학년, 화폐에 대한 윤리, 통제의 주제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Hayhoe 등(1999)의 연구에서도 신용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수록 신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결과에 대해 보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재무관리 강의를 들은 처치집단에서만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과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사이에 의미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Makela et al., 1993).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와 신용카드 사용행동을 살펴보면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서 신용카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서경의, 1997; Chien & De vaney, 2001). 또한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사용할 것인가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Kaynak et al., 1986).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신용카드 사용행동 여부와 사용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신용카드사용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재무관리 행동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일반적으로 ① 자신의 소득과 지출, 저축에 대한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② 자신의 삶의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③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재무행동계획을 세우고, ④ 설정된 재무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⑤ 수행한 재무행동계획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다섯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재무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생활의 만족은 달라진다(김정훈, 1993).

대학생의 재무관리행동 수준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소득과 소비지출액, 그리고 소비패턴이나 신용사용 행동에 관한 것으로, 그 연구결과들은 대학생들의 소비성향과 부모의존도가 높고, 과소비, 충동구매, 강박적 구매 등 소비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경자, 2002; 김중인 등, 2002; YMCA

2001). 김경자(2003)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세우지 않고 있으며, 저축이나 소비가 무계획적이고, 소득과 지출의 기록행동도 62%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대학생들도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Jump & S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2003)<sup>1)</sup>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즉 대다수의 많은 젊은 학생들은 첫 신용카드 관리에 실패하고 바르지 못한 재정관리습관을 형성하며, 시행착오를 거쳐 많은 시간과 금전을 소모하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Baek(2001)도 1999년 미국 대학생 643명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26%가 재무문제를 겪고 있었고, 예산관리를 하는 학생도 16%에 불과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갚지 못하고 최소한의 하한선만 갚아나가고 있는 학생이 24%였고 신용관련 지식을 테스트한 결과 평균 63점을 얻어 재무문제에 있어서 아주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연령, 교육년수, 가계소득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Davis & Carr, 1992, Godwin, 1994, Hira et al., 1992, 정운영·황덕순, 2002 재인용).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yhoe 등(2000)은 소득, 연령, 주거지, 결혼상태, 성별 등을 사용한 결과 결혼상태, 성별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소득, 연령 등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자 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예산을 세우거나, 구매목록을 작성하거나, 구매에 대한 후회, 지출 계획, 규칙적인 저축, 영수증 보관, 잔고가 없는데 수표를 쓰는 것 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재무관리능력의 인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Williams(1991)의 연구에서도 재무관리 행동에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예산을 세우거나, 지출을 기록하거나, 지출의 계획과 우선순위를 세우거나 재무관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거나, 계획을 실천하거나, 최적의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출액을 추정하거나, 순가치의 환산, 여러 활동을 고려하는 면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정훈(1993)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차이가 있어서, 위험에 대한 준비, 금전관리의 구체적인 실행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잘하고 있으나, 금전관리정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심영(2004)의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 수준 중 소비지출관리행동, 즉 계획세움, 내용기록, 수입한도 사용, 영수증 보관 등에 있어서 성별, 부모의 학력, 가계소득, 부모와의 동거여부, 학년 등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황덕순 등(2002)은 용돈이 적을수록 주어진 용돈의 범위내에서 효율적

1) <http://www.jumpstart.org>

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재정관리 평가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재무관리와 관련한 지식, 능력수준에 있어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재무관리지식이 높았고(Markovich & De Vaney, 1997), 재무관련 능력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더 만족하고 있다(Lytton & Grable, 1997). 김정훈(1993)의 연구에서도 재무관리 지식수준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으나, 재무관리능력에 대한 인지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와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데, 첫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Walker(1996)의 연구에서는 신용 및 부채에 대한 태도가 재무관리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Waker가 사용한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Lea 등(1995)이 사용한 척도로 은행구좌의 수, 재무관리기술에 대한 자신의 평가, 고지서 납부에 대한 계획, 고지서 납부를 위해 내 부규정을 가지고 있거나 즉시 납부하는 것 등의 4문항으로 기존의 재무관리행동 척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그 결과를 재무관리행동 수준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Hayhoe 등(2000)도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론적 모델을 설정한 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10개의 재무관리행동 수준 중 1개 영역(구매 후 후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재무관리행동이 자신의 재무상태 평가, 구체적인 재무 목표 설정, 재무행동계획 수립, 재무계획 실행, 수행 후 평가라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때 재무관리행동의 실행 수준은 신용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 수준은 '나는 신용한도액까지 사용한다', '신용카드로 쇼핑을 할 때는 계획에 없던 것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신용한도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 것으로 신용카드를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소의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채의 유무, 크기, 빈곤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재무관리행동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Lea et al., 1995; Lunt & Livingstone, 1991; Walker, 1996). 즉 Lea 등(1995), Walker(1995)는 한 가계의 부채상태는 재무관리스타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서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재무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부채가 없는 사람들은 부채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금전관리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Lunt와 Livingstone(1991), Livingstone과 Lunt(1992)의 '가계의 대처행동(household coping)' 연구에서도 부채가 없는 사람들은 부채를 갖게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재무적 전략, 즉 예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재무문제에 대해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 수준에 대한 사회인구적 변수의 영향력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재무관리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 III. 조사방법

#### 1. 연구문제 및 연구모델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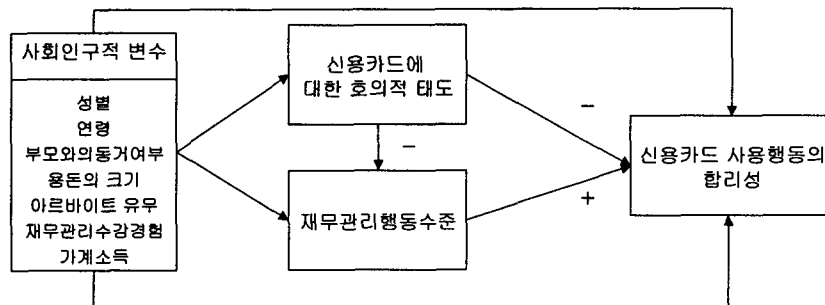
첫째,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 및 사용행동의 합리성, 재무관리행동 수준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 재무관리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적 변수는 무엇이며,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재무관리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사회인구적 변수,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이므로 앞의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모든 가능한 인과관계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델

2. 변수의 측정

1) 독립변수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성별, 연령, 재무관리수강경험 외에도 부모와의 동거 여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화폐를 벌어서 본 경험은 이러한 경험을 위해 투여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게 되어 화폐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구매,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화폐를 벌어서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런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소비를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oss et al., 1995).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대학생의 시기는 처음으로 자신의 재무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시기로 (Davis et al., 1995), 특히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이러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느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변수로 설정하였다.

2) 종속변수

- ①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 : 신용카드에 대한 척도는 Xiao 등(1995)의 정서적 태도문항을 참조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등이 포함되어있다.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의미한다.
- ② 재무관리행동 수준 : 재무관리행동 수준 수준은 Hayhoe 등(2000)의 연구를 참조하여 재무관리와 관련된 8문항을

'전혀 하지 않는다'에서는 '거의 항상 한다'는 5점 Likert 척도로, '예산 세우기', '쇼핑목록 작성', '규칙적인 저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 : Roberts 등(1998)의 연구를 참조하여 5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 '나는 신용한도액까지 사용한다', '신용카드로 쇼핑을 할 때는 계획에 없던 것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소비자학을 전공한 교수에게 내용타당도를, 신뢰도는 Cronbach' α계수에 의해 내적일관성을 검토하였다. 신뢰도계수는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789,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740,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이 .670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대학생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은 대전 시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 4곳 (C, H, T, M 대학)을 택하였으며, 전공의 특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교양과목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03년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의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본조사는 2003년 11월 10일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434)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	201(46.3)	재무관리 수강경험	없다	260(59.9)
	여	233(53.7)		1과목	96(22.1)
학년	1	41(9.4)		2과목이상	78(18.0)
	2	126(29.0)	부모교육수준	중졸이하	56(13.1)
	3	129(29.7)		고졸	172(40.1)
	4	138(31.8)		전문대졸	16(3.7)
주성장지	대도시	283(65.2)		대졸	151(35.2)
	중소도시	117(27.0)	대학원이상	34(7.9)	
	읍면	34(7.8)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24(5.5)
거거형태	부모님과 함께	287(66.1)		100-150만원 미만	35(8.1)
	하숙, 기숙사 등	57(13.1)		150-200만원 미만	65(15.0)
	자취	90(20.7)		200-250만원 미만	55(12.7)
용돈의 크기	10만원 미만	14(3.2)		250-300만원 미만	74(17.1)
	10-20만원 미만	66(15.2)		300-400만원 미만	78(18.0)
	20-30만원 미만	143(32.9)	400-500만원 미만	57(13.1)	
	30-50만원 미만	112(25.8)	500만원 이상	46(10.6)	
	50-60만원 미만	39(9.0)	신용카드 보유수	1개	202(46.8)
	60만원 이상	60(13.8)		2개	122(28.1)
아르바이트 경험	유	385(88.7)		3개	72(16.6)
	무	49(11.3)		4개 이상	38(8.5)

부터 11월 24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으며, 총 45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 중 기제가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434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46.3%(n=201), 여학생이 53.7%(n=233)이며, 학년은 2, 3, 4학년이 거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1학년이 신용카드 소유가 낮기 때문에 가장 적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 4. 분석방법

관련변수의 일반적 경향은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재무관리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OLS(ordinary least squar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전반적인 경향 파악을 위해 하나의 지표로, 그리고 8개의 하위영역별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분석은 대학생들의 재무관리 실행 정도를 더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인구적 변수와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신용카드사용의 합리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과분석(path analysis)을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신용카드태도 및 사용행동의 합리성, 재무관리행동 수준의 일반적 수준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의 평균이 각각 3.11로 중간점 수준이다. 이는 Chien 등(2001)의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Xiao 등(1995)의 연구에서는 중간 이상의 호의적인 태도(3점 이상)를 갖는 응답자가 97%인 것과 비교해보면 낮은 편이다.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3.18로 중간 수준이며 하위영역 중 '규칙적인 저축'이 2.71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4> 참조).

신용카드에 대한 합리성은 2.04로 중간점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신용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자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2. 신용카드태도 및 재무관리행동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 및 재무관리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성별, 학년, 부모와의 동거여부, 용돈의 크기,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재무관리 수강경험, 가계소득 등 7개변수이다. 분석에 앞서 다공선성의 여부는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와 공차한계(Tolerance)를 검토하였다. 독립변수의 상관관

계는 0.4이하로, 공차한계는 0.96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공선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를 <표 3>에서 보면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학년, 부모와의 동거여부, 용돈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설명력은 12.6%로 나타나고 있다. 각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설명해 보면, 용돈이 많을수록( $\beta=284$ ), 학년이 높을수록( $\beta=172$ ), 그리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beta=136$ ) 신용카드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이 높을수록 호의적인 태도가 높은 것은 Joo 등(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표 2> 신용카드태도 및 사용행동의 합리성, 재무관리행동 수준의 일반적 경향

	평균	표준편차
신용카드태도	3.111	.459
재무관리행동 수준	3.178	.612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	2.044	.598

<표 3> 신용카드태도 및 재무관리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B( $\beta$ )

	신용카드 태도	재무관리행동 수준
성별 <sup>a</sup>		-1.129(-.129)
학년	1.127(.172)***	
부모와의 동거여부 <sup>b</sup>	1.846(.136)**	-1.230(-.134)
용돈의 크기	1.761(.284)***	-.727(-.173)***
아르바이트 경험 <sup>c</sup>		
재무관리 수강경험 <sup>d</sup>		1.574(.117)***
가계소득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	-	
상수	34.690	26.954
F	21.824***	11.955***
R <sup>2</sup>	.132	.100
adj. R <sup>2</sup>	.126	.092
Tolerance	.988-.995	1.000

\*\*\* : p<.001, \*\* : p<.01, \* : p<.05

a : 1=남자, b : 1=동거, c : 1=있음, d : 1=있음(1회 이상)

- : 해당사항 없음

재무관리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하나의 지표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지표화하는 과정에서 2문항(구매에 대한 후회, 이자를 지불하는 할부구매의 정도)은 역으로 하여 합산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성별 등을 포함한 7개의 사회인구적 변수와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등 총 8개 변수이다.

그 결과를 <표 3>에서 보면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성별, 부모와의 동거여부, 용돈의 크기, 재무관리수강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설명력은 9.2%로 나타나고 있다. 각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설명해 보면 재무관리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 $\beta=.177$ ), 용돈이 적을수록( $\beta=-.173$ ),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beta=-.134$ ), 그리고 여학생( $\beta=-.129$ )이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하위영역별 회귀분석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재무관리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와 사용한 척도가 다르더라도 Waker(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3. 재무관리행동 수준의 하위영역별 회귀분석

대학생소비자의 재무관리 실행정도를 보다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8개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회귀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산을 기록하는 것(FP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소득, 학년, 재무관리 수강경험여부, 부모와의 동거여부, 성별 등으로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6.3%이다. 즉,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beta=-.147$ ), 학년이 낮을수록( $\beta=-.126$ ), 재무관리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 $\beta=.119$ ), 부모와 함께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 $\beta=-.111$ ), 그리고 여학생( $\beta=-.105$ )이 남학생에 비해 예산 세우기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시 쇼핑목록을 작성하는 것(FP2)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용돈의 크기로, 용돈이 적을수록( $\beta=-.149$ ) 쇼핑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그 설명력은 2.0%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을 구매한 후 후회하는 것(FP3)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성별, 학년이 유의미한 변수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3%이다. 즉 남학생( $\beta=.143$ )이, 그리고 학년이 높을수록( $\beta=.105$ ) 구매 후 회를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FP4)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성별, 용돈, 재무관리강의경험여부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8%이다. 즉 여학생이( $\beta=-.142$ ), 용돈이 적을수록( $\beta=-.123$ ), 그리고 재무관리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 $\beta=.120$ ) 영수증 등을 더 잘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계획을 세우는 것(FP5)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모와의 동거여부, 용돈의 크기, 재무관리수강경험, 성별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그 설명력은 6.6%이다. 즉 부모와 함께 기거를 하지 않는 경우( $\beta=-.143$ ), 용돈이 적을수록( $\beta=-.135$ ), 재무관리수강경험이 있는 경우( $\beta=.130$ ), 그리고 여학생( $\beta=-.126$ )이 지출계획을 더 잘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규칙적으로 저축을 하는 것(FP6)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재무관리 수강경험( $\beta=.160$ ) 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 규칙적으로 저축을 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설명력은 2.3%이다.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할부구매를 하는 것(FP7)에 대한 회귀

<표 4> 재무관리행동 수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B( $\beta$ )

	FP1	FP2	FP3	FP4	FP5	FP6	FP7	FP8
평균	3.37	3.24	2.82	3.44	3.11	2.71	3.70	3.07
성별 <sup>a</sup>	-210(-.105)*		.275(.143)**	-326(-.142)**	-259(-.126)**			
학년	-129(-.126)**		.104(.105)*				.146(.137)**	
부모와의 동거여부 <sup>b</sup>	-.234(-.111)*				-.308(-.143)**			
용돈의 크기		-.146(-.149)**		-.136(-.123)**	-.134(-.135)**			-.108(-.125)**
아르바이트 경험 <sup>c</sup>								
재무관리 수강경험 <sup>d</sup>	.242(.119)**			.280(.120)*	.272(.130)**	.369(.160)***		.213(.117)*
가계소득	-.073(-.147)**							
신용카드 태도								
상수	4.244	3.604	2.394	3.817	3.661	2.562	3.282	3.253
F	6.774***	9.843**	6.177**	8.339***	8.590***	11.318***	8.324**	6.557**
R <sup>2</sup>	.073	.022	.028	.055	.074	.026	.019	.030
adj. R <sup>2</sup>	.063	.020	.023	.048	.066	.023	.017	.025
Tolerance	.967-.994	1.000	.985	.985-.999	.980-.998	1.000	1.000	1.000

\*\*\* : p<.001, \*\* : p<.01, \* : p<.05

a: 1=남자, b: 1=동거, c: 1=있음, d: 1=있음(1회 이상)

FP1 : 예산 세우기(기록)

FP2 : 쇼핑목록 작성

FP3 : 구매에 대한 후회

FP4 : 영수증 등 보관

FP5 : 지출계획

FP6 : 규칙적인 저축

FP7 : 할부구매(이자지불)

FP8 : 재무관리를 잘 함

분석 결과 학년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학년이 높을수록( $\beta=.137$ ) 할부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설명력은 1.7%이다.

재무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FP8)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용돈의 크기, 재무관리 수강경험이 유의하고, 그 설명력은 2.5%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용돈의 크기가 작을수록( $\beta=-.125$ ), 재무관리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 $\beta=.117$ ) 재무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서 영향을 미치는 하위영역이 많은 변수별로 정리해보면, 재무관리수강 경험은 5개의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경험이 있는 경우 예산세우기, 영수증 보관, 지출계획 세우기, 규칙적인 저축, 재무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무관리 관련 과목의 수강경험이 대학생의 재무관리 실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은 4개의 하위영역, 예산을 기록하거나, 구매후의 후회, 영수증 보관, 지출계획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예산을 기록하거나 영수증 보관, 지출계획 세우기 등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Williams, 1991; Hayhoe, 2000)와도 일치된 결과이다. 또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자신의 구매에 대해 더 많이 후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구매계획, 구매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용돈의 크기는 4개의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용돈이 적을수록 쇼핑목록 작성, 영수증 보관, 지출계획, 재무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이 적은 경우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관리 행동을 한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황덕순·홍은실, 2002).

학년의 경우 3개의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학년이

낮을수록 예산을 세우며, 자신의 구매에 대한 후회도 낮고,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할부구매를 하려는 경향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 합리적, 계획적 구매의 중요성 등의 재무관리교육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예산생활의 기록, 지출계획 등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혼자서 재무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 재무관리 실행도가 더 높았다.

한편 신용에 대한 태도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인과분석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변수인 사회인구적 변수와 매개변수인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재무관리행동 수준의 합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은 성별, 학년, 용돈의 크기와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 재무관리행동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설명력은 10.7%로 나타나고 있다. 각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설명해 보면, 용돈의 크기가 적을수록( $\beta=-.205$ ) 합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사용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돈이 적은 경우 신용카드사용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연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돈이 적을수록 신용카드를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재무관리행동 수준의 실행정도( $\beta=.157$ )가 높을수록 신용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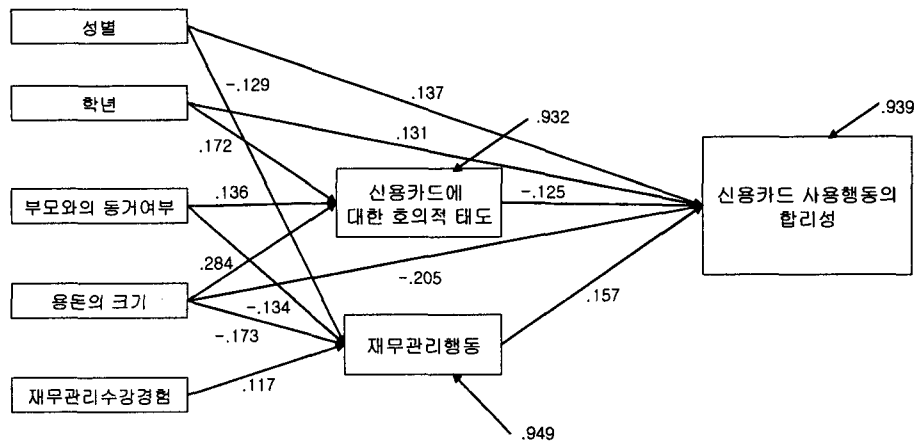
<표 5>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회귀분석 B( $\beta$ )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
성별 <sup>a</sup>	.820(.137)**
학년	.400(.131)**
부모와의 동거여부 <sup>b</sup>	
용돈의 크기	-.590(-.205)***
아르바이트 경험 <sup>c</sup>	
재무관리 수강경험 <sup>d</sup>	
가계소득	
신용카드 태도	-.082(-.125)**
재무관리행동 수준	.107(.157)***
상수	13.687
F	11.420***
R <sup>2</sup>	.118
adj. R <sup>2</sup>	.107
Tolerance	.9767-.985

\*\*\* :  $p < .001$ , \*\* :  $p < .01$ , \* :  $p < .05$

a : 1=남자, b : 1=동거, c : 1=있음, d : 1=있음(1회 이상)





<그림 2>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인과모형

<표 6>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총효과분해

변수	총효과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성별 <sup>a</sup>	.073	.137	재무관리행동 수준 : -.020	-.044
학년	.064	.131	신용카드 태도 : -.022	-.045
부모와의 동거여부 <sup>b</sup>	-.062		신용카드 태도 : -.017 재무관리행동 수준 : -.021 합 계 : -.038	-.024
용돈의 크기	-.243	-.171	신용카드 태도 : -.036 재무관리행동 수준 : -.027 합 계 : -.063	-.009
재무관리 수강경험 <sup>d</sup>	.017		재무관리행동 수준 : .018	-.001
신용카드 태도	-.173	-.125		-.048
재무관리행동 수준	.380	.157		.223

a : 1=남자, b : 1=동거, c : 1=있음, d : 1=있음(1회 이상)

사용행동의 합리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관련연구 결과(Lea et al., 1995; Livingstone & Lunt, 1992; Lunt & Livingstone, 1991; Walker, 1996)를 통해 추론 했던 결과이다.

그리고 남학생이(β=.137)이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학생이 충동구매성향이 높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소비자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년이 높을수록(β=.131)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히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낮을수록(β=-.125)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이 높는데, 이는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김영신, 2004; 이윤금 등, 1998; Chien & De vaney, 2001; Livingstone & Lunt, 1992; Lea et al., 1993)와 일치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와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가설적인 연구모델을 수정한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6>은 인과모델에서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로 분해한 결과이다.

<그림 2>와 <표 6>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는 사회인구적 변수가운데 성별, 학년, 용돈의 크기는 직접,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부모와의 동거여부, 재무관리 수강경험은 간접효과만을 미치고 있다. 이를 변수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직접효과와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통하여 간접효과를 미치는데, 그 효과의 방향은 서로 다르나 직접효과가 간접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남학생이 신용카드 사용행동이 더 합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은 직접효과와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통하여 간접효과를 미치는데, 그 효과의 방향은 서로 다르며 총인과효과는 .064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신용카드에 대

한 태도가 호의적이어서 간접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행동이 합리성에 부적효과를 미치나, 직접적인 정적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전체적으로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용돈의 크기는 직접효과와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통하여 간접효과를 미치며, 그 크기는 -.243이다. 즉 용돈이 많을수록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높고, 재무관리행동 수준의 수행수준은 낮아서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신용카드태도, 재무관리 행동을 통하여, 재무관리수강경험은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통하여 간접효과만을 미치고 있다. 즉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높아서 신용카드에 사용행동의 합리성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무관리 수행수준도 낮아서 그 크기는 -.062이다.

재무관리수강은 경험이 있는 경우 재무관리행동 수준의 수행수준이 높아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이 높으며, 그 크기는 .017로 크지 않다.

매개변수인 신용카드 태도와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각각 정적,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소비자를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회인구적 변수(성별, 학년, 부모와의 동거여부, 용돈의 크기, 가계소득,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재무관리수강경험)를 선행변수로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매개변수로 하여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소비자들의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중간점 수준이나, 신용카드에 대한 합리성은 중간점이하로 나타나고 있어서 신용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자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20대 중 약 28%는 학교, 가정 등 어디에서도 신용관련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김정인 외, 2002),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가정, 학교,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이 서로 협력하여 학년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재무관리수행수준은 중간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학생 소비자들 대상으로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

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달성가능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계획이나 지출을 통제하는 계획을 세우고, 예·결산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등 일반가계를 대상으로 한 재무관리과정을 대학생소비자에게 적용시켜 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생소비자는 Internet에 익숙한 세대이므로 이와 관련한 사이트(예 : [www.nefe.org](http://www.nefe.org), [www.italladdwup.org](http://www.italladdwup.org))를 활용함으로써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여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용돈의 크기가 적을수록, 재무관리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 재무관리 수행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무관리 수강경험은 재무관리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간접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에서 이와 관련한 교양과목이 폭넓게 개설되거나, 적어도 이러한 내용의 교양강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재무관리능력의 향상, 신용카드의 합리적인 사용 등으로 재정적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높을수록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의 편리성 등의 순기능을 역기능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역기능, 즉 신용카드가 과소비, 충동구매, 비계획적인 구매, 이로 인한 신용불량, 연체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의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학년이 높을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그리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히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집단에 대한 태도, 가치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신용카드회사의 광고 등 마케팅전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회사의 광고가 감성적 동기를 자극하고 있으며(예를 들어 원하는 생활수준을 얻을 수 있다.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등), 다양한 부가적 서비스(현금서비스, 포인트 적립, 할인혜택)는 과소비 등을 유발하고 있다. 신용카드회사도 이러한 마케팅전략에 대한 장기적 효과 즉, 미래의 주요고객인 대학생소비자가 신용카드의 순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광고, 마케팅전략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높으나,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은 낮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성별의 차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남학생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재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며, 반면에 여학생은 신용카드로 충동구매, 과소비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용돈의 크기, 가계소득의 크기,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용돈, 가계소득의 크기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인지도와 아르바이트 동기 등이 소비자관련 연구에서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의 보유수(Hayhoe et al., 1999; Xiao et al., 1995), 사용빈도(Hayhoe et al., 2000)도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 사용행동 등과 관계가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별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행동(Hayhoe 등, 2000),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품목(Makela 등, 1993), 재무관리행동 수준(Markovich & De vaney, 1997) 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인과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도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신용카드를 소지한 대학생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에 대한 바른 태도 형성과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기 전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신용카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비교함으로써(연령을 시간 흐름의 대리치로 간주하여) 유사시계열(pseudo-longitudinal)분석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 접수일 : 2005년 05월 05일  
 □ 심사일 : 2005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10월 14일

#### 【참 고 문 헌】

- 김정인·송훈·나상록(2002). 20대의 소비·금융 행태 -현명한가. 국민은행연구소.
- 김경자(2002). 대학생의 재무의식과 개인재무관리 행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_\_\_\_\_(2003). 대학생들의 화폐태도와 개인재무관리 실태, *소비문화연구*, 6(3), 33-50.
- 김영신(2004). 대학생소비자의 부채에 대한 태도와 현금서비스 이용행동. *소비문화연구*, 7(4), 23-41.
- 김정훈(1993). 남녀대학생들의 금전관리관련 행태와 인식. *소비생활연구*, 11, 43-54
- \_\_\_\_\_(2002). 여대생과 주부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0(3).
- 로버트 D 매닝 저, 강남규 역(2002). *신용카드 제국*. 참솔.
- 박근주(1990).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금·김주연·조향숙(1998). 복수신용카드 소지자들의 신용카드 사용행태와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 이기춘·박근주(1997). 소비자신용 연체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39-152.
- 서경의(1997).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 YMCA(2001).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실태 조사보고서*.
- \_\_\_\_\_(2002). *신용카드 이용실태에 대한 소비자의식 조사*.
- 서현주(2002).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영(2004). 대학생 소비자의 소비지출태도, 관리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7(3), 17-40.
- 한국은행(2004). 2004년 1/4분기 중 지급결제동향.
- 한국소비자보호원(2003). *신용카드 이용현황 및 의식실태조사보고서*.
- 황덕순·홍은실(2002). 여대생소비자의 목표중심적 가치가 재정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2), 175-186.
- Baek, E.(2001). Financial concerns and problems of college student.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2001*, 16-25.
- Bloom, D. E. & Steen, T. P.(1987). Living on credit, *American Demographics*, Oct., 22-29.
- Chien, Y. W. & De vaney, S. A.(2001). The effects of credit attitude and socioeconomic factors on credit card and installment debt,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5, 162-179.
- Churaman, C. V.(1988). College student use of consumer credit, *Proceedings of the 34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107-113.
- Davies & Lea(1995). Student attitudes to student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 663-679.
- Doss, V. S., Marlowe, J. & Godwin, D. D.(1995). Middle-school children's sources and uses of money.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9(1), 219-241
- Durkin, T. A.(2000). Credit cards: use and consumer attitudes. *Federal Reserve Bulletin*, 86(september), 623-633.
- Ford, J.(1990). Credit and default amongst young adults: An agenda of issues. *Journal of Consumer Policy*, 13, 133-154.

- Hayhoe, C. R., Leach, L. J. & Turner, P. R.(1999). Discriminating the number of credit cards held by college students using credit and money attitud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0, 643-656.
- \_\_\_\_\_, Bruin, M. J. & Lawrence, F. C.(2000). Difference in spending habits and credit us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4, 113-133.
- Joo, S. H., Grable, J. E. & Bagwell, D. C.(2001). College students and credit car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 Kaynak, E., Yucelt, U. & MacGregor, R. M.(1986). Attitudi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American and Canadian credit card holders. *Journal of Professional Services Marketing*, 1(3), 101-119.
- Kidwell, B. & Turrisi, R.(2004). An examination of college student money management tendenci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5(5), 601-616.
- Lea, S. E. G., Webley, P. & Levine, R. M.(1993). The economic psychology of consumer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4, 85-119.
- \_\_\_\_\_, & Walker, C. M.(1995). Psychological factors in consumer debt: Money management, economic socialization and credit us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 681-701.
- Livingstone, S. & Lunt, P. K.(1992). Predicting personal debt and debt repayment: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 determinant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3, 111-134.
- Lunt, P. K. & Livingstone, S. M.(1991). Everyday explanations for personal debt: A network approach.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309-323.
- Lytton, R. & John, E. G.(1997). A gender comparison of financial attitudes. *Proceedings of the Eastern Family Economics and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14.
- Makela, Carole J., Tapin, P. & Geraldine, I. O.(1993). Consumer's credit cards and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7, 73-186.
- Markovich, C. A. & De vaney, S. A.(1997). College seniors' personal finance knowledge and practice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89, 61-65.
- Roberts, J. A.(1998). Compulsive buying among college students: An investigation of its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implication for public policy.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2(2), 295-319.
- \_\_\_\_\_, & Jones, E.(2001). Money attitudes, credit card use, and compulsive buying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5(2), 213-240.
- Walker, C. M.(1996). Financial management, coping and debt in households under financial strai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7, 789-807.
- Warwick, J. & Mansfield, P.(2000). Credit card consumers: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7(7), 617-626.
- Williams, F. L.(1991).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b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ir relationship to productivity, satisfaction with time management and quality of life. *Proceeding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00-125.
- Xiao, J. J., Noring, F. E. & Anderson, J. G.(1995).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s credit card.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 155-174.